

『THOMAS J. BURNS』 & 『HARVEY S. HENDRICKSON』著

『THE ACCOUNTING SAMPLER』

(McGraw-Hill, Inc., New York, U.S.A., 1972, Second Edition)

南 相 午

이 책은 회계학문헌 중에서도 특이한 부류의 책에 속한다. 딱딱하다고만 생각되는 회계학계통의 서적 가운데에서도 이 책은 시, 어록, 연설문, 신문기사, 학술지의 논문등 각양 각색의 글을 의도적으로 7가지 주제하에 편집한 것으로, 공통점이 있다면 회계 또는 회계학에 관련된 글이라는 점이라고 하겠다. 1967년에 처음 출간되어 1972년에 대폭적으로 개정 증보된 이 책은 102개 제목의 글을 1개의 단행본으로 엮었는데 일반적으로 논문모음집의 타이틀인 「Readings in……」하는 책과는 달리 심오한 내용을 담은 석학의 논문뿐만 아니라 부담없이 읽을수 있는 Robert Frost의 詩, Wall Street Journal, New York Times, The Economist 등의 기사나 단편적인 글도 있다. 원래 저자들은 이 책을 초급회계(Elementary Accounting)를 배우는 과정에 있는 학생들에게 부교재로서 사용하도록 편집하였다고 서문에서 밝히고 있다. 왜냐하면 경영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이 초급회계만을 공부하고 중급 또는 고급회계를 더 이상 선택하지 않으므로서 오늘날 제기되고 논의되고 있는 회계학의 제 문제를 모르고 지나칠 것이기 때문에 이 책이 학생들에게 회계학 또는 회계에 얽혀있는 복잡한 문제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본서에 수록된 102개의 글은 다음과 같은 7가지의 주제에 따라 저자들이 분류정리 하였다

1. The Accounting Environment
2. The Accounting Model
3. Valuation in Accounting
4. Management Planning and Control
5. The Contemporary Scene:  
Some Issues and Controversies

筆者 : 서울대학교 經營大學 附設 韓國經營研究所 研究員, 서울대학교 經營大學 專任講師.

## 6. Financial Statements and Their Users

### 7. The New Accounting

본서의 제1부에 있어서는 「회계의 환경」이라는 주제로 회계, 회계학, 회계를 직업으로 하는 회계감사인을 둘러싼 회계의 주변을 다루었다. 회계학의 발달과정에 관한 글과 회계를 전문적인 직업으로 하는 회계감사인을 소재로한 논문들을 여기에 모아놓았다. 회계학의 발달에 있어서는 변형되어가는 회계의 의미와 역할에 관한 Adolph J.H. Enthoven의 입문적인 글을 실었다. 또 수학, 행동과학, 계량분석등 회계학의 인접과학이 회계학과 어떠한 관련을 갖고 있는가에 대한 단문을 실어 회계학을 처음 배우는 사람에게 단편적이거나 회계학의 학문적인 위치와 성격을 알기쉽도록 배려하였다. 회계감사인을 둘러싼 환경에 있어서는 회계감사인의 기능, 심리상태, 감사인으로서 특이하게 느껴야하는 직업의식에 대해서도 다루었다. 또 오늘날 회계이론과 실무의 발전에 커다란 역할을 해왔으며 국제적인 회계감사업체 Big 8 중의 하나인 「Arthur Andersen & Co.」의 성장과정을 실례로 들어 CPA Firm 이 회계감사업무를 수행할뿐만 아니라 회계원칙의 정립에 어떠한 기여를 하고 있는가를 소개하였다. 제1부에 실린 글 중에서는 「회계의 환경」이라는 주제에 비추어 다소 거리가 먼 느낌이 있는 글도 있으나 전체적으로 일관성을 유지하였다. 아쉬운 점으로서는 회계를 직업으로서 하는 사람은 회계감사인뿐만 아니라 경리사원, 내부감사인등이 있는데 이들에 대한 소개가 없다는 것이다. 또 미국회계학회(American Accounting Association 미국회계학자들의 모임)의 활동에 관해 소개한 것이 있는데 지금 회계학연구에 있어서 큰 공헌을 하고 있는 미국공인회계사회(American Institute of Certified Public Accountants), 전국회계사협회(National Association of Accountants)등 또 회계학연구에 관련성을 갖고있는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미국재무최고경영자회(Financial Executive Institute), 대학의 각 연구기관등 제활동을 간략하게나마 소개하는 글을 실었다면 회계학연구에 대한 체계적인 흐름과 내용을 학생들이 파악할 수 있었을 것이다.

제2부는 「회계의 모델」이란 제목으로 회계의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좋은 논문을 모았다. 수익과 비용, 이익의 인식과 측정, 자산의 본질등 회계학의 제기본개념에 대해서 Carl L. Nelson, John H. Myers, R.M. Lall 등이 저술한 논문, 자금운용표의 개념에 관한 L. S. Rosen의 논문도 실었다. 여기에 수록된 것은 입문적인 성격의 글이라기 보다는 중급수준의 회계이론에 관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R.A. Rayman의 「Is Double Entry Really Necessary?」란 글을 제외하고는 제2부의 주제제목에 적합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제3부는 「회계의 가치」에 관한 것으로 Iziri, Sprouse, Moonitz, Ross, Davidson등 오늘날

에 있어서 회계학연구에 많은 공헌을 하고있는 학자들의 논문이 실려있다. 회계학상의 가치의 평가와 측정의 문제, 역사원가에 대한 변호, 현재원가(Current Cost)에 대한 사례, 자산의 평가등 최근 이슈가 되어온 회계학의 문제들을 망라하고 있다는 느낌이다. 여기서 특히 물가변동을 표시한 다란식재무제표(Multi-Column Statements)의 사용여부에 대한 Mautz, Solomons, Jaedicke Davidson, Miller등 교수들의 좌담은 흥미롭다.

제4부는 「관리의 계획과 통제」로서 원가회계와 관리회계를 중심으로 다루었다. Sidney Davidson의 J.M. Clark논문 「Studies in the Economics of Overhead Costs」에 대한 논문이 발표된지 40년만의 재음미는 주목할 만한 것이다. 그외에도 William J. Vatter의 논문 「Contributions of Accounting to Measurement in Management」에서 Vatter는 회계의 과정을 많은 사람들이 관습적으로 자료의 수집에 그치는 것으로 그 기능을 이해하고 있으나 이것은 협의로 이해한 것이며 회계는 측정과 자료수집을 통하여 경영진에 각종의 기업경영자료를 제공하여 경영에 대한 통일적인 판단기준을 제시한다고 보았다. 또한 Data processing과 통계적수법의 발전에 따른 회계자료의 분석등으로 기업경영의 난점을 해결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보았다. 이외에도 직접원가계산, 예산, PPBS, O.R.등 오늘날 회계의 관리적인 측면에서의 문제 또는 이용되고 있는 수단에 대해 정리하여 분류해 놓았다.

제5부는 1973년도까지 존속하였다가 그임무를 재무회계기준심의회(FASB, Financial Accounting Standards Board)에 인계한 미국공인회계사회의 회계원칙심의회(APB, Accounting Principles Board)의 업무, 목적, 회계원칙의 정립을 위한 역할이 수록되어 있다. 회계원칙심의회가 펴낸 의견서(Opinions)중에서도 Lease, Goodwill, Pensions, Income Tax Allocation등 의견이 발표된 후에 논쟁의 쟁점이 되고있는 문제들에 대한 논문을 실어 독자들로 하여금 회계원칙에 있어서 상반되는 여러가지 이견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인적자원회계(Human-Resource Accounting)에 대한 Woodruff, Whitman, Brummet등의 토론이다.

제6부는 「재무제표와 그 이용자」에 관한 것으로 재무제표자체가 시사하는 것이 무엇이며 이에 따라 재무제표가 어떤 방식으로 작성되어야 하고 기업이해관계자의 욕구를 얼마만큼 충족시켜야 하는가에 대해서 다루었다. 여기에 수록된 논문중에서 Corcoran과 Leininger, Jr.의 「Financial Statements: Who Needs Them?」은 훌륭한 논문으로서 기업체에서 년례적으로 발표하는 재무제표의 문제점을 잘 지적하였다. 또 주주(투자자 또는 자본주), 은행가(채권자), 재무분석가들이 재무제표로부터 어떤 자료를 유도하여 이용하고자 하는지에 대한 글도 실려있다. 또 재무보고에 있어서 회계감사인의 책임, 노사관계에 있어서 회계사의 역

활동 공인회계사가 재무제표의 단순한 검증자로서의 역할보다는 좀더 폭이 넓어진 회계사의 역할을 다루었다. 아울러 「기업공개촉진법」과 「자본시장육성법」에 의하여 공개기업과 투자자, 채권자등 기업 이해관계자의 수가 증가하여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기업재무정보 공개 표시범위의 문제, 재무제표의 검증과정에서 발생한 공인회계사의 자질향상문제등 우리나라에서 차차 논의되기 시작하거나 이미 논의된 문제가 포함되어 있다.

제7부 「새로운 회계」라는 제목하의 글은 회계의 기능과 역할이 미래에는 변천되는 것으로 보았다. 첫번째 논문인 Sidney Davidson의 「Accounting and Financial Reporting in the Seventies」는 70년대에 일어날 수 있는 회계학상의 변화를 구체적으로 들었다. 「회계원칙심의회」의 개선, 무형고정자산회계, 시가표시재무제표, 재무보고의 개선 특히 자금운용표, 계열별재무보고(Line-of-business Reporting), 예산의 발표, 기업통계자료의 발표, 현재가치에 대한 중요성의 인식등 그가 1969년에 「Arthur Young Journal」에 발표한 이 논문의 내용이 70년대의 후반기에 접어든 오늘에 있어서 이미 실현되었거나 또는 토론되고 있다는 점에서 그의 통찰력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그외에도 회계감사인의 책임의 변화, 조직적인 경제범죄에 대한 회계감사인의 대응조치, 사회회계, 공해문제에 대한 회계사의 관여등 사회진보의 발전에 기여하는 회계에 대한 논문을 수록하고 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저자가 이 책을 저술할 때에는 초급회계의 부교재로서 사용하도록 의도하여 회계에 관련한 글을 모았다. 필자의 견해로는 이 책의 효용성은 초급회계의 부교재라기 보다는 중급회계 또는 대학원과정의 세미나교재로서 적합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회계에 관련된 간단한 지식이나 내용을 수록하였을 뿐만 아니라 복잡하고 고차원적인 회계학상의 문제를 다루었기 때문이다. 102개나 되는 글의 배열은 대체적으로 적절하였으나 몇개의 글은 다른 주제아래에 배열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며 너무 잠문적인 성격이 짙어 제외하여도 좋은 것도 있었다. 아쉬운 점은 이 책의 저자가 각 주제별로 오늘날에 있어서 제기된 문제들이 어떻게 해결되고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에 대한 저자의 Comment와 Evaluation이 있었다던 좀더 완벽한 책이 될 수 있었으며 단순히 신문기사 또는 문제점의 제시로 끝나는 문장이 아니고 주제에 대한 설명, 총괄적인 분석, 가능하다면 해결책의 제시등 어떤 결론이 제시될 수 있고 저자 나름대로의 의견이 병기되었다면 좋았을 것이다.

아울러 이 책의 가치는 단순한 스크램북으로 그치지 않는 회계학의 문제점을 제시해주고 의견과 분석적인 연구의 결과를 밝혀주는 글을 모은 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책을 읽으므로써 학생 또는 독자들이 회계학은 단순히 기술적인 학문에 그치지 않고 깊이가 있고 폭이

넓으며 토론 되어야하는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책은 또 연구논문등을 작성하는 학자, 대학원 학생들에게도 좋은 참고서적이 되므로 회계학에 뜻을 둔 분들에게 일독을 권하는 바이다.